"기준치 넘지 않았지만"… 항공 승무원, 방사선 노출에 불안감

방사선 안전 기준 6mSv 이내 관리
지난해 평균 피폭방사선량 1.72mSv
에어프레미아 3.21mSv 가장 높아

국적사 항공기 모습. /뉴시스

항공 승무원의 피폭 방사선량 안전 기준(6mSv) 이하로 노출되더라도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항공운송사업자 피폭방사선량 및 안전조치 결과보고에 따르면 2023년 전체 항공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 평균은 약 1.72mSv(미리시버트)다. 피폭방사선량 관리 기준은 6mSv.

기준 수치를 초과한 항공사는 없었지만 소량의 방사선 노출이 지속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운항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은 평균 1.51mSv·최대 5.09mSv이며, 객실승무원은 평균 1.82mSv 최대 4.93mSv다.

원자력안전재단은 "실행 기관이다 보니 기준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기준이 6mSv로 설정된 것은 국제기구 권고나 유럽 기준을 참고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업계는 안전 기준인 6mSv보다 강화된 기준이 나오면 그에 맞춰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피폭방사선량이 가장 높은 항공사는 에어프레미아였다. 평균 3.21mSv, 최대 5.09mSv 수준이다.

원자력안전재단 관계자는 "에어프레미아가 높게 나온 것은 주로 장거리 노선을 운영하고, 대형항공사에 비해 노선이나 승무원 풀이 적어 평균값이 높게 나온 것 같다"며 "단순하게 특정 항공사 하나만 높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임신한 승무원은 1mSv 이하로 유지하며, 노출량이 5~5.5mSv인 승무원은 방사선량을 낮추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하는 등 승무원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외 국적사들도 승무원이 연간피폭방사선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단거리 근무 일정 편성을 조정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임신한 승무원의 경우 노출량 기준치(1mSv)를 넘지 않도록 비행 업무에서 배제하고 있다. 임신으로 인한 근무 배제 조치를 보고한 항공사는 에어부산(8건), 에어프레미아(1건), 이스타항공(1건), 티웨이항공(7건) 등이 있다.

한편 원자력안전재단의 혈액검사에서 수백 명의 직원이 재검이나 추적관찰이 필요하단 소식이 전해지자, 저비용항공(LCC) 업계는 잘못된 정보가 확산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해당 조사는 빈혈이나 체질상의 문제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조사"라며 "(건강 이상 집계가)카운팅이 잘못된 정보가 기정사실처럼 퍼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재단 관계자는 "해당 조사(혈액검사)가 우주방사선 영향인지 다른 체질 질병 등에 대한 영향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2023년 6월부터 시행하다보니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대성기자 iunmds@metroseoul.co.kr

SKT, AI 윤리 강화한 'T.H.E. AI 행동규범' 도입

비차별·비폭력 가치로 사회문제 해결
AI 기술로 디지털 약자 없는 세상 구현

SK텔레콤은 글로벌 AI(인공지능) 컴퍼니로 도약하기 위해 AI거버넌스 기본 원칙을 구체화한 'AI 행동규범'을 사규에 반영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서약에 전 구성원이 동참했다고 16일 밝혔다. AI거버넌스는 AI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AI 피라미드 전략이 강한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SK텔레콤이 경영시스템에 선제적으로 도입한 AI기술관리 체계 이자 추구가치다.

SK텔레콤의 AI거버넌스 기본 원칙인 'T.H.E. AI'는 'by Telco, for Humanity, with Ethics AI'를 축약한 것으로, ▲SKT AI의 특성(by Telco, 통신기술 기반으로) ▲목표(for Humanity, 사람을 향한, 사람을 위한) ▲가치(with Ethics, 윤리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를 의미한다.

SK텔레콤은 이러한 AI거버넌스의 주요 원칙들을 종합해 전 구성원들이 'T.H.E. AI'를 실천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행동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한 'AI 행동규범'을 수립했다.

'통신기술 기반(by Telco) 행동규범'은 이동통신 사업(Telco)에서 축적된 고객 데이터 관리 노하우를 다양한 AI 기술 서비스에 적용, 고객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고객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지속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을 향한(for Humanity) 행동규범'은 AI 기술이 모든 고객에게 편향 없이 작동해 디지털 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이를 통해 교육, 건강, 고용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AI 서비스 환경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윤리적 가치 중심(with Ethics) 행동규범'은 AI기술에 비차별·비폭력 가치가 적극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 개발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실천을 통해 사람 중심의 AI를 추구한다.

한편, SK텔레콤은 '글로벌 AI 컴퍼니'를 비전으로 삼고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AI 의사결정 체계를 회사경영에 도입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 담당(CGO)이 총괄하는 AI 거버넌스 전담 조직을 신설, AI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경영 전반에 필요한 AI거버넌스를 확립하여 조직간 시너지 창출에 매진하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조영탁 "모든 기업, 위기를 기회로 삼는 계기 바라"

〈휴넷 대표〉

'포사이트 코리아' 출범
AI 등 5개 트랙, 30개 세션 '첫 선'

휴넷은 16일 오전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휴넷 CEO 포럼 포사이트 코리아 2025'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조영탁 휴넷 대표가 질문에 답하고 있다. /휴넷

휴넷이 사업계획 수립시 기업들이 참고하고 최고경영자(CEO) 등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하기위한 포럼 '포사이트 코리아(FORESIGHT KOREA)'를 새롭게 출범했다.

기업 의사결정권자들이 사업 전략 수립시 마주하는 다양한 고민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실현 가능한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서다.

조영탁 휴넷 대표는 16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가진 '휴넷 CEO 포럼 포사이트 코리아 2025'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평일 매일 아침에만 250개 정도의 포럼이 있다고 한다. '포사이트 코리아'는 기업의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제로 매년 9~10월께 열 계획"이라며 "처음 선보이는 올해의 경우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 불확실성 시대 사업 전략 ▲불황 극복을 위한 영업 및 마케팅 전략 ▲생산성 향상 및 핵심 인재 확보 방안 ▲AI를 비롯한 기술 트렌드까지 5개 트랙에 걸쳐 총 30개의 세션의 준비했다. 이를 통해 내년을 종합적으로 전망하고 사업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자는게 포럼을 시작한 취지이자 다른 포럼들과의 차별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위기는 '위협'과 '기회'의 합성어라고도 한다. 지금은 위기 상황이다. 그러나 위기에 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다만 위기엔 소수의 기업만 더 잘 되고 다수의 기업은 힘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포사이트 코리아'를 통해 대한민국 모든 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포사이트 코리아 2025' 기조강연자로 나선 서울대 경영대학 송재용 교수는 내년 사업전략 수립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패러다임으로 ▲AI 혁명 ▲국내외 경제 저성장 기조 고착화와 주요국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와 글로벌 공급망 대전환을 꼽았다.

송 교수는 "여러 국가의 전쟁, 미국 대선, 글로벌 경기 침체 등 국내외 경제 환경에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기업은 사업전략 시 예측되는 외부 환경에 따른 복수의 시나리오와 대응 전략을 미리 수립해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

한솔제지

종이 디자인 공모전

내년 1월 2일까지 제품 접수

한솔제지가 제 7회 인스퍼 어워드(INSPER AWARD)를 열고 내년 1월 2일까지 종이를 활용한 디자인 제품을 접수한다.

16일 한솔제지에 따르면 인스퍼 어워드는 한솔제지가 2018년부터 개최해 온 국내 최초 페이퍼 디자인 공모전이다. 인스퍼는 한솔제지 팬시지의 대표 브랜드로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Inspiring) 종이(Paper)'를 의미한다.

인스퍼 어워드는 인쇄, 출판, 기획 등 관련 종사자 또는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참가하는 일반부와 전국 디자인 관련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부로 구분하며, 참가자는 종이로 제작된 책·패키지·스테이셔너리(소품, 생활용품, 문구류) 등의 디자인 제품을 출품하면 된다.

이번 어워드 시상은 출품작에 사용한 지종에 따라 일반부는 인스퍼상, 블랙페이퍼상, 골든페이퍼상을 수여하며, 학생부에는 인스퍼상과 영디자이너상이 각각 돌아간다.

/김승호 기자

청호나이스

"정수기로 홈 스타일링" '뉴 러블리트리' 출시

청호나이스가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한 정수기 '뉴 러블리트리'(사진)를 출시했다.

16일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새롭게 선보인 '뉴 러블리트리'는 최근 홈 스타일링에 관심이 높아지는 트렌드를 반영해 자사의 핵심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디자인으로,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모던 스톤 텍스처를 제품 전면에 적용해 특유의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가로 18㎝의 초소형 크기로 공간 활용에 뛰어나며 전면 디스플레이 컬러는 라벤더, 오트밀베이지, 피치 3가지 포인트 컬러 중 선택할 수 있다.

제품의 관리 및 사용 편의성을 더욱 높인 것도 특징이다. 취수 코크 형상을 변경해 취수 시 물 튀김 현상을 최소화했으며 두 개의 필터를 동시에 체결하는 원터치 방식으로 내부구조를 변경해 필터 교체 과정이 더욱 간편해지고 안전성도 강화했다.

/김승호 기자